

# 대학과 대학생의 출석

강 월 도

한성대 철학 교수



작년 국회에 낸 교육부의 대학 실태 국정감사 자료에 관해 동아일보의 「횡설수설」(1993년 10월 29일)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교수가 출석부까지 잃어버리고 다녀서야 될 말인가.”하고 흥분하고 있었다.

교육부의 14개 대학 감사에서 500여 명의 교수들이 “출석성적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출석부 미제출 등으로 징계조치 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고에 붙여 동아일보 「횡설수설」 필자는 “이같은 교수들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여론의 화살을 받고 있는 가운데”하고 횡설수설하는 것이다.

교육부의 징계조치는 대학의 이상과 한국 대학의 실정에 몰지각하고 구태의연한 답습의 방책인가 하면, 동아일보의 「횡설수설」 반응은 한국 언론계의 지도자적 위치에서 대학의 실정과 대학의 이상적 역할을 너무도 모르고 좀 더 비판적인 판단을 해야 할 언론의 책임을 방치하고 횡설수설 떠드는 것 같은 인상을 저버릴 수 없다.

이상적으로 대학생은 자신의 전문 분야를 자기가 선택했고 그 과업을 연마하는 성인이다. 이러한 전문의 선택과 그 연마의 과정에서 대학생은 자기의 기질과 능력에 의존하여야지 부모의 도움에 의존할 수 없다. 그들은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 학생과 같이 그들의 과오에 대해 교사가 부모를 부르는 미성년자가 아니다. 대학생은 그들의 언행에 대해 교수가 그들의 부모와 상의하지 않고 직접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성인이다.

우리나라 대학생이 우선 경제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은 사실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경우가 다르다. 젊은이가 대학을 가면 먼저 집을 떠나 대학 기숙사나 대학촌 임대 아파트에서 살며 장학금, 국가보증의 대학교육채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자립하는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교육과 장래에 자신이 책임을 진다. 한국의 실정에선 대학생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부모님에 의존

하고 있으나 자기의 능력과 적성에 관한 판단, 자기 전문의 선택 추구에서 자율적이고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는 성인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인으로서 대학생은 수강 신청을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강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결강을 할 경우 대학생은 자기 책임을 알 것이다. 대학에서의 출석은 학생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지, 교수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다. 강의에 결석하고 과제와 숙제를 소홀히 하고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은 자기 자신이 대학 과정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것을 모르는 학생을 누가, 어느 교수가 구제할 수 있는가?

한국에서도 교수가 대학생의 결석에 대해 그 부모님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다.(결강은 사회의 범법과 두 가지 중요한 점에서 다르다. 첫째, 결강의 테두리인 대학은 언제나 학생이 떠날 수 있으나, 범법의 테두리인 포괄적인 사회는 쉽게 벗어날 수 없다. 둘째, 첫째 조건과 관련하여, 결강에 대한 마지막 수단은 퇴학이라는 대학과의 결별을 의미하지만, 범법에 대한 마지막 수단은 사형이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재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한국 대학의 현 실정에서 학생이 100명이 넘는 강의도 있다. 그런 강의에서 출석

을 부르려면 적어도 이십 분이 넘는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 한 10명이나 20명이 듣는 강의에서는 누가 출석하고 누가 결석했는지를 출석을 부르지 않고 알 수 있다. 대학에서 출석을 부른다는 것은 낭비라고 본다.

출석을 부르는 방법으로 학생들을 교내에 잡아 두려는 방책은 학생들의 활동을 억제하려던 지난날의 정부 정책의 잔재라고 본다.

나는 오랜 동안 외국에서 대학 교수생활을 하고 귀국한 경우인데, 거기서 교육부가 대학에 나와 교수들이 출석을 부르는지 또는 어떻게 학점을 결정하는지 감사를 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나라의 일류 언론매체가 대학 교수가 출석부를 잃어버렸다고 흥분하여 횡설수설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 ▣

---

강월도/서울대 사회학과를 1학기 수료하고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한 후, 콜럼비아 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인디애나주립대 조교수를 거쳐 현재 한성대학교에서 철학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희곡 『어쩐지 돌연변이』, 『인조인간』, 시집 『욕망, 그 가면극』, 주요논문으로 "G. H. Mead's Concept of Rationality : A Study of the Use of Symbols and Other Implements", 논평집 『이성과 미의 축제 · 철학과 정치, 연극과 비평』 등이 있다.